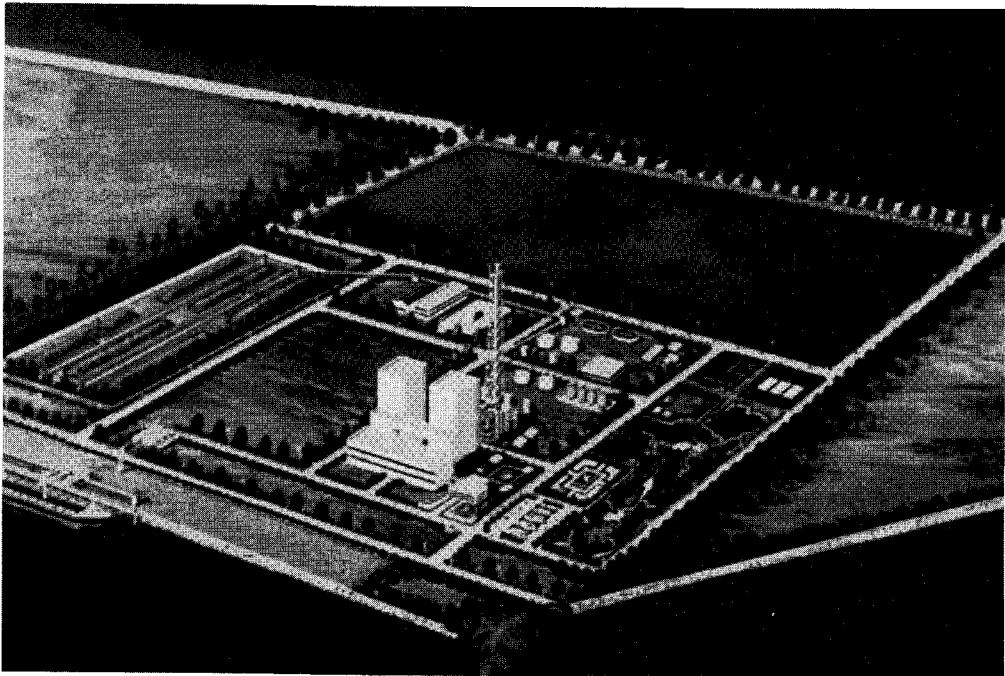


전력·에너지 전문회사 포스에너지 21세기 초일류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



전남 광양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50만kW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준공 예정인 광양화력발전소 조감도

포스에너지 설립배경

포스에너지는 국내 제1호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된 전력·에너지 전문회사로서 포항제철이
지난 30여년간 축적하여 온 발전경험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입지, 항만 등 INFRA와 포항제철의 인

력을 기반으로 '96년 9월 9일 창립하였다.

포스에너지의 주요사업은 정부의 "민자발전 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민자발전 부문, 포항제철의 자가발전소와 산소공장을 운영하는 자가발전부문, 제철소 사용연료를 중유에서 LNG로 대체하는 LNG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민자발전사업 현황

우선 민자발전사업으로 전남 광양에 1조 2천억원을 투자하여 50만kW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준공 예정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하게 된다.

자가발전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140만kW에 달하는 포항제철의 자가발전 설비와 산소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철소 설비능력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 각 1기씩 LNG복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LNG부문은 '97년 5월 정부의 승인을 받아 광양제철소내에 4,120억원을 투자하여 10만kW LNG터미널 2기를 2002년 4월까지 건설함으로써 연간 120만톤의 LNG를 외국에서 직접 도입하여 LNG자가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다.

발전설비 효율적 운영

창립 2차년도가 되는 금년에는 수탁 운영중

인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소공장 등 신규 인수설비의 조기 안정조업을 도모하는 한편 LNG발전소의 적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 민자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조기에 획득하여 금년 11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EPC계약 체결을 통해 Boiler 및 T/G등 주기의 발주 추진과 함께 경제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LNG터미널 건설관리를 위해서는 금년 7월 중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LNG터미널에 대한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LNG 직도입 방안도 강구하여 나갈 계획이다.

초일류 종합에너지회사 성장

앞으로 포스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을 바탕으로 동남아 등 해외 발전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또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외 광산개발에도 참여함으로써 21세기 초일류 종합에너지 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에너지의 '97년말 기준 회사 현황은 매출액 1,200억원, 자본금 200억원, 종업원수 560명('98. 3월)수준이며, '98년도에는 매출액 1,5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